

광주 곳곳 ‘애물단지’ 전략 의류수거함 해법 없나

총 1천200여개...최근 4년여 민원 206건
쓰레기·악취 多...허가 불구 사유 재산
행정 개입 어려워...“처벌 규정 등 필요”

“내부에 옷이 있거나 할까요? 의류수거함인
지 쓰레기 투기인지인지 참.....”

18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소태동 한 주택가
골목 어귀에 놓인 의류수거함 주변에는 낡은 솜
이불과 주차 금지 표지판, 쓰레기가 잔뜩 담긴
파란색 봉투가 널브러져 있었다.

초록색 수거함 걸면 곳곳은 녹이 슬어 있었
고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안내하는 스티커도
떨어져 나가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실감했
다.

같은 날 오후 남구 주월동 한 거리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거
함 앞에는 임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큰 이
불이 놓여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소재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
다.



18일 광주 주월동 한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왼쪽). 같은 날 동구 소태동 한 의류수거함.

이처럼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투기처럼 되
버린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
라고 입을 모았다.

주월동 주민 A씨는 “이 동네에 산 지 5년이 지



18일 광주 주월동 한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왼쪽). 같은 날 동구 소태동 한 의류수거함.

났는데 수거함에 옷을 넣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
거해 가는 이들도 못봤다”며 “수거함 주위에는
늘 쓰레기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구청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민

원도 몇 차례 넣었는데 그 때문이었다”며 “이런
거면 철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실제 광주 5개 자
치구에 관련 민원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의류수
거함 수는 ▲동구 106개 ▲서구 396개 ▲남구 288
개 ▲북구 307개 ▲광산구 222개 등 총 1천272개
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의류수
거함 관련 불편 민원은 서구가 74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남구 68건, 북구 60건, 동구 4건으로 나타
났다.

광산구의 경우 민원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처리만 하고 있다.

주된 민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악취, 미관 훼손
등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자치구들은 의류수거함 설
치자에게 쓰레기 수거 등 주의 정돈 또는 이동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 수거 요청
의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 당사자가 버린 게 아닌
만큼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
다는 점이다.

이동 조치 요청의 경우도 의류수거함 자체가
사유 재산인 만큼, 거부하더라도 행정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광주 5개 자치구들은 의류수거함 설치를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에선 의류수거함 관리 의무를 설치자, 즉
허가를 요청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할 때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각 자치구들은 조례를 제정하며 미비점
을 보완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류수거함은 민간 수익
시설이기에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도 지자체에
서 철거 등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며 “민원이 반
복되는 지역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
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관리체
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시민 의식 제
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은정 기자

광주과학관 前 임직원들 ‘억대 계약비위’ 시인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발주 계약을 부당
체결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임직원들과 브로커,
업자들이 ‘재배당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 (박
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국립광주과학관 계약
비위’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을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임
본부장 A씨 등 과학관 전직 직원 4명과 B씨 등
브로커 4명, 납품업자 3명 등 총 11명에 대한 재
판을 재개했다.

A씨 등 전직 과학관 임직원들은 발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
을 수수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을 알선한
업자로부터 720만원~3억1천800만원을 받아 A

씨 등에게 250만원~7천150만원을 교부한 혐의
로, 납품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
을 맺어준 대가로 A씨 등에게 각각 185만원~845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
씨의 경우 뇌물수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액수에 대
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
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에 대해선 재판을 분
리하고, 다음 달 16일 A씨 등에 대해선 증인신
문 절차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지난 4월2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해당 재판부
의 배석 판사가 과거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인
과 같은 로펌 소속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추정
후 재배당됐다. /안재영 기자

‘10억대 비상장주 투자사기’ 일당 검거...관리자급 3명 구속

상장예정인주식정보를제공하며 신뢰를 얻은 후
가치가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수
법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와 자본시장
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 등 혐의로 A씨 등 관리
자급 3명은 구속, 또 다른 3명은 불구속 수사 중
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

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
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
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의 신원을 순차적으로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검거된 이들 외의 공범도 있을 것으로 보며
여죄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재영 기자

금타 노조 “1공장 재가동·함평 이전 서둘러야”

내년 하루 최대 1만본 생산 전망

산업은행 건설비용 협조 등 촉구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1공장 조속 가동과 함평 빛그린산단 신공
장 이전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를 비롯한
5개 노조는 18일 광주공장 연구동에서 기자회견
회를 열어 “1공장을 9월부터 재가동하고 신공장
이전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대의원대회를 개최, ▲
광주 1공장 재가동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 공
식화 ▲노사 공동 정상화 로드맵 수립 ▲산업은
행 자금 협조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광주 1공장은 직접 피해를 입진 않았으나 고
무 정련과 반제품 설비가 전소된 2공장의 영향
으로 가동이 멈춘 상태다.

노조는 곡성공장 정련공정이나 외부 고무제조
업체에서 반제품을 공급하면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해 초부터 일일 4천본 이후 하루
최대 1만본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며,
공장 소속노동자 1천800여명 중 약 300명이 4조3교대
로 투입돼 순환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용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장은 “1공
장은 가동할 수 있다. 순환 근무를 통해 복구 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 복구 전문업체가 사다리를 이용해 분진 피해를 입은 주민의 가구와 의류 등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주성학 기자

간을 버터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중북 투자와 지역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함평 이전의 적기로 보고
한국산업은행의 건설비용 마련 협조를 요구했으
며, 시측이 7월 발표 예정인 수습 로드맵과 관련해

서는 노동자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밖에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도 언급하며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19일부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
로 1인 선전전을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